

주택저널

NO.279 NOVEMBER 2011

11



Special Edition

3色 건축스토리 공개

수익형 부동산

틈새 경쟁력을

찾아라

에이머건축도시연구소 **제갈업 소장의 'Y&P 주택'**

Interior Trend ● 주방, 무게감 벗고 개방형 선택하다

생태건축가 이장욱의 연재 기획

생태건축을 말해봐! ①

일신건영 창원 감계지구 697세대 분양

SK D&D 도시형 생활주택 강동 큐브II

보금자리주택

11월 아파트 분양&



ISBN 6000502974
주택저널2011.11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월간지), 70
33000000-50

1 round

WHY

생태건축가 이장욱의 '생태건축을 말해보' ①

왜 생태건축인가?

생태건축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생태건축이 시골스럽고, 산촌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는 다소 오해가 있다. 생태건축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축이라는 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건축임을 말하고 싶다.

글 이장욱 (주)GIP 대표



도심 한복판에 입체적으로 골목길과 녹지공간을 형성한 저밀도의 주거공간은 생태적인가?

(Odhams Walk-Covent Garden, 영국런던)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다, 아는 후배가 출연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웃음을 터뜨린 기억이 있다. 자막에 '생태건축가' 라고 그에 대한 소개 글이 적혀있었는데, 차가운 도시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의 이미지와 잘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상하던 생태건축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증이 생겨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생태건축가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일단, 밀짚모자를 써야겠지. 옷은 반드시 개량한복을 입어야 해, 듬성듬성한 구레나룻이 있으면 더욱 어울리겠지만, 고무신을 신은 발엔 거뭇거뭇 흙내음이 묻어나고 뒷집 진 손에 낫이나 호미가 들려져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밀짚모자 끈에 눌린 자국이 선명한 약간 붉어진 얼굴엔 해탈한 듯 한 사람 좋은 미소가 가득해야 진짜야.”

참 많은 선입견이 있지만 맞는 말 같다. 고집스러운 가운데 건강한 모습이다.

그럼 생태건축은 뭐지?

“산속에 지어진 흙집, 흙벽돌집, 벚짚으로 지은 집, 돌집 그런 거 아니야? 아, 맞다! 페타이어로 짓거나 흙 부대자루로 지은 집도 생태건축이지?”

그럼 친환경건축은 뭘까?

“태양열, 태양광이나 지열, 풍력발전 같은걸 써서 에너지를 얻는 거지.”

그럼 패시브하우스는?

“비슷한 거 아닌가? 태양에너지 쓰고, 단열이 잘 되고, 열교환장치나 환기장치 같은 것 쓰는 독일에서 건너온 신기술 주택말이야.”

이제 누구나 패시브하우스나 친환경건축에 대해 물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심지어

연·재·순·서

1. '왜 생태건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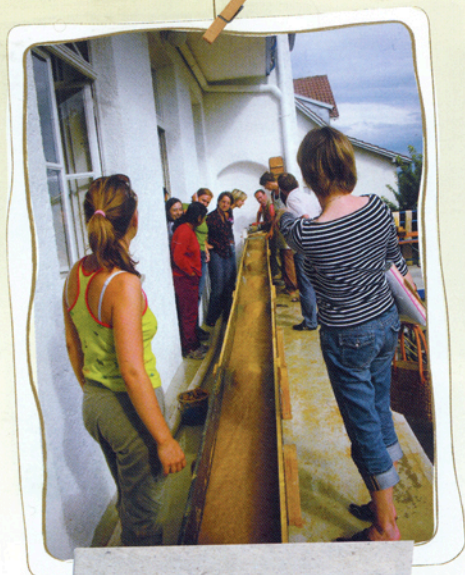
생태건축이 무엇이며, 왜 생태건축을 하여야 하며,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가.

2. '어떻게 생태건축인가'

생태건축의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도시형 생태마을'

현대 한국인에게 맞는 한국형 생태건축과 생태마을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우수를 이용하는 것이 생태적인가?

(독일 생태건축가의 작업)



물과 자연을 만들어낸 도심의 고층 아파트는 생태적인가? (홍콩)

그 이미지에 대한 표현은 서로 비슷비슷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저에너지 건축, 바이오하우스, 그린건축(Green Architecture), 제로하우스, 탄소제로하우스, 지속가능한(Sustainable) 건축, 대안 건축, 환경공생주택, 기후순응형 주택 등등 멋진 이름은 끝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 아니, 모두 알아야 하는 건가?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축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항상 받는 질문에 한번쯤은 속 시원히 말해주고도 싶었다. 하지만, 사실이 모든 용어들은 각각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명확하게 따져보자!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저마다의 이론이 있지만 결국 후대에게 물려줄 이 지구의 건강을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아껴 쓰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란 신조어는 건축과 도시의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참 잘 표현해주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인간의 이기심을 순화시킨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생태건축,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해법이자 과학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태건축은 무엇인가? 아니 왜 그 많은 정의들 속에서 하필 생태건축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오래된 '해법'이자 '과학'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어진 3번의 원고를 통해 생태건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이 중, 첫 번째 원고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질문들을 공유하고 과감히 정의 내려가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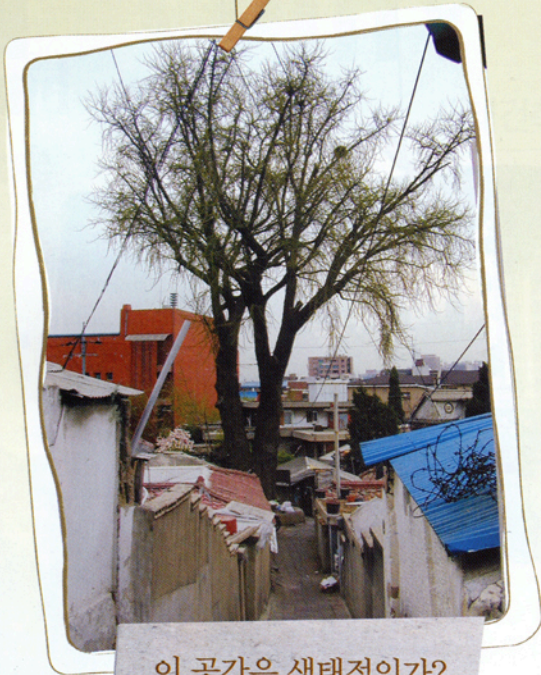
모든 과학기술이 그렇듯 생태건축 또한 진형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내왔다. 더 화려한 해설이 있겠지만 결국 생태건축은 인간의 오랜 숙제이자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락한 주거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건축기술이라고 정의하겠다.

생태건축을 정의할 때, 흔히 쓰이는 단어가 유기적, 전체적, 통합적 또는 자연과의 조화 등이다. 혹자는 지구환경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인간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현대의 안락함을 일부 양보하는 것이 생태적인 삶이라고 한다. 조금 과격하진 않는가?

무위자연의 모습은 초두에서 묘사한 우리 머릿속의 생태건축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상상의 발로일까? 우리나라 농림부에서도 산촌생태마을이라 하여 별써 수 곳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산속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발전된 문명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인가? 모든 사람들은 막연한 추억 속 시골의 삶을 그리워하며 견뎌낼 수 있는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최근에 지정된 충남의 한 생태마을은 굳이 산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라는 최신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기가 생각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생태건축은 얼리어답터(Early Adaptor)의 몫인가? 이



이 공간은 생태적인가?
(서울 남산의 골목길)



이들의 삶은 생태적으로 보이는가?
(베스터브로, 덴마크 코펜하겐)



이 마을은 생태적인가?
(서울 한남동 골목길)

역시 불안하다. 정부가 세계적인 공감대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인의 노력에 대폭 지지하고 있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때인가? 내가 정말 산속에 바닷가에 자리한 공단에 비해, 얼마나 지구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건가는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굳이 내가 그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있나?

생태건축에서 나와 내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찾아라

그렇다면 왜 생태건축인가? 또, 누구 위해 해야 하는 걸까? 아니, 나는 어디까지 타협해야 하나?

누구에게 등 떠밀리듯이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결국 '나', '내 가족'이다.

인간의 무차별한 개발과 편리성에 대한 추구에 제동을 걸고자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것은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렇다. 1년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자동차배기가스보다 소의 가스배출과 트림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것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환경문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는 것은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산업은 최종 사용자가 있기에 존재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물질 배출에 대한 제어는 수많은 최종 사용자에게 이르기 전에 한꺼번에 제어해야만 훨씬 효과적이다.

'지속가능성'의 초점을 지구가 아닌 개인에게 맞추어보자. 어렸을 적 시험을 앞두고 TV 앞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폐가 좋지 않은데도 담배는 피어야만 하는 아버지는 어떤가?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에 몰두하는 자녀는 내버려 둘 것인가? 많이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생태건축의 이유이다. '나' 그리고 '내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정주공간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생태건축가의 몫이다.

생태건축의 최대 목표는 에너지절약이 아닌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생태건축의 최대 목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다.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저감하는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나의 불편을 꼭 희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이다. 건강은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하다.

생태건축의 기술은 물리적으로 실내 환경의 온도, 습도 및 공기의 질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중요



이들의 삶은 또 어떤가?
생태적으로 보이는가?
(빌리지 홈스, 미국)



콘크리트 카우(Concrete Cow)라고
놀림 받던 콘크리트 덩어리 도시는
생태적인가? (밀턴 케인즈, 영국)

한 것은 '인간성'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가족 간 이웃 간 커뮤니티의 관계성 회복이 그것인데, 그러므로 생태건축은 항상 건축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도시단위로 이야기 되어져야 한다. 1962년 스코틀랜드에서 공동체마을 핀드혼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커뮤니티였다.

덴마크 Gaia Trust의 창립자인 Ross and Hildur Jackson이 글로벌생태마을네트워크(The Global Ecovillage Network:GEN)를 전 세계에 전파할 때 역설한 말은 생태건축의 본질과 그 효과를 적절히 나타내준다. 그는 "생태건축과 생태마을의 접근방법은 전통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지속가능한 삶과 연관된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GEN이 추구하는 것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보텀업(Bottom-up) 접근 방법이다."

생태건축은 자연을 닮은 기술을 습득하려는 오랜 과학기술의 습성

생태건축은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닮은 기술을 습득하려는 오랜 과학기술의 습성을 지칭하는 건축기술의 방법일 뿐이다. 다만 그 방법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기존의 건축기술이 미적 아름다움과 높이 쌓아올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에 반해, '지속가능성' 즉 개인에게 있어서는 '건강', 인간 생태계에 있어서는 '인간

성' 회복에 있는 것일 뿐이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순환'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태건축의 이론에서는 에너지, 물질, 물, 공기의 흐름이 순환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거주자 자신이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순환이다. 건축물은 그 자체의 과학이 아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야 하는 숙명이 있다.

그렇다면, 거주자의 생활도 순환의 구조 안에 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여 자연의 모습을 닮았다. 산촌에 있는 마을도 생태이고, 콘크리트로 지은 도시 내의 주거도 생태이다. 완벽한 것이 있다면 정의하겠지만, 생태건축은 항상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의보다는 점검 목록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왜 생태건축이고, 어디까지 타협해야 하는가? 반문하면, 나와 내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줄 보금자리는 왜 필요하고, 난 얼마만큼 그것을 원하는가?

개개인이 그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개인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에 무조건 책임의식을 느끼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국내 최초의 생태마을로 불리는 안솔기마을의 경우도 산속에 지어진 집이라 하여 모두 통나무집이나 흙집은 아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자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찾았을 뿐이다. ⑤